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을 향한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THE GOSPEL NEWS

6月15日(金) <1984年> 第409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洪永其・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 5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指紋押捺撤廃街頭署名

東京・大阪・小倉・沖縄에서 同時に 열려



大阪駅前①과 数寄屋橋公園前②에서街頭署名을 하고 있는 광경

犯人的取扱의 指紋押捺는 廢止되어야! 聖靈降臨主日に 聖靈인도하심따라

在日大韓基督教会 總會와 日本基督教團은 「宣教師協約」 체결 후 最初의 共同事業으로 指紋押捺制度反對 街頭署名運動을 六月十日 聖靈降臨主日 이후 三時에 東京과 大阪 그 밖에 小倉, 沖縄에서 同時に 열렸다.

大阪駅前에서는 在日大韓교회로 부터 洪永其 會長, 金榮植 社會局長, 金得三 伝道局長, 메킨도수, 李炳球의 兩牧師, 金京秋, 曾桂副會長, 鄭敬子 北部教會長老, 金吉雄, 禹永吉 庫川教會長老 그리고 青年多數가 參加하였다.

教團側에서는 後宮俊夫 總會議長, 辻建總書記 등 약 五十名이 참가하였다. 兩教會의 總會長, 議長은 外国人登録法이 가지고 있는 問題性과 指紋押捺으로 인한 人權踐躪을 강하게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가슴에 휘장을 두르고 호소문을 뿌리면서 署名協力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약 二時間의 署名運動으로 약 五百名의 署名을 받게 되었다.

東京은 이날부터 장마철에 들어간다는 예보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街頭署名運動의 熱氣로써는 最惡의 날이었지만 署名에 協力해 준분은 五百三十名에 달했다. 總會側으로부터는 高完 地方會長, 尹宗銀 KCC 副理事長, 康恩弘 社會部長, 金鍾武 牧師, 金君植 總務, 橫濱教會의 李永欽, 金連伯 兩長老, 金太休, 西新井教會長老, 池成權, 金京子 兩學生, 金順子 總會職員 등이 參加하였다. 教團側으로부터는 中嶋總幹事, 大塚清之助 日韓連帶委員長, 森山志靖 國問題委員長, JNACC 宣教師 등 四十五名이 街頭署名運動에 參加하였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銀座 數寄屋橋를 통행하는 人들을 에게 中嶋總幹事는 마이크를 잡고 「日本人이라면 犯人이 아닌 이상이야 指紋을 찍지 않는 데도 모든 外国人에게 指紋을 찍는 것은 差別이다」라고 호소하였다. 金總務는 外国人의 指紋押捺에 대한 日本人의 無關心은 殺人行爲이며, 指紋을 찍는 外国人의 力量을 다하기 위해 基督教敎

總會에서 定한 主日を 지킵시다!

教會學校育 成에 全力을

各教會단위로 基督教敎育週間 實施를 바라며

本 教團의 教育局은 七月八일부터 七月十五日까지 特別히 教會學校의 育成에 全力을 다하기 위해 基督教敎

各教會 青年 會主日지켜

總會 青年局은 六月十日의 주일에 各教會의 青年會 育成과 全國青年會全國協議會事業을 위해 青年主日로 지켜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特別히 이날은 教會青年指導者의 養成을 위해 韓日 敎大會를 오는 八月十五日부

統一讚頌歌使用키로 總會教育局서 決定

教會一致에 一步前進

本總會 教育局의 決定으로 使用하기로 한 統一讚頌歌가 전국 各教會에 배포되었다. 이 讚頌歌는 韓日 敎大會 새 찬송가를 하나로 합친 韓國敎會 一〇〇周年紀念事業의 하나의 結晶體이다. 가치는 비단 두루마리 千円, 금박가죽이 二千円이다. 속히 찬송가대금을 총회에 보낼 것을 교육국은 당부하고 있다.

協力과 付託

全國敎會에 하나된 祝福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敎勢報告, 公同會議錄, 敎會員(牧師, 長老, 執事)名單, 敎役者사례 집대조사서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總회의 宣敎負擔金, 어미니주인 敎金, 青年主日 敎金, 福音新聞購読料, 그의 各種 敎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聖書と演劇の集い 閉ざされた扉

場所: 新宿西教會 (新宿シャロームビル3階)
日時: 7月8日(日)午後2時・5時
キリスト伝道劇団新生館

韓國基督教一〇〇周年 記念宣敎大會열려

總會伝道局에서 募集

韓日敎會는 宣敎 一〇〇周年을 맞이하여 歷史的인 宣敎大會를 오는 八月十五日부

터 十九일까지 開催한다. 韓國에 改新敎가 들어온지 올해로써 一〇〇년이 되는 해에 本總會의 伝道局에서는 韓國敎會 宣敎一〇〇周年 參加團을 募集하고 있다. (募集 告參考) 宣敎大會의 行事內容 등 具體的인 行事日程 이미 伝道局에서 案内狀을 보내바 있다. (四면 참고)

投稿 歡迎

一、內容 總會, 敎會에 關하여 地域運動 에 關하여 個 敎會現狀報告 등 一、枚數 二千字以內 一、送付處 福音新聞社

<手造り10年の実績>

土地・分譲住宅・建築設計・施工

建設業者許可番号大阪府知事(般54)第19580
宅建免許番号大阪府知事⑤第6014

三喜建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鄭 且 聲
(大阪教會長老)

本社ビル 大阪府守口市竜田通1丁目13番地
電話 (06) 991-3222(代)

(KCPチエン・エアポートイワイ)

聖和商事

タイ王室に果実納品(14年間継続中)
大阪国際航空全機内食果実納品

代表者 禹 永 吉
(武庫川教會長老)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国際空港前)
TEL (店) 06-843-0816
TEL (自) 06-855-3865

大道商事

所長 金 道 子
(船橋教會 執事)

千葉市村田町 665-5
電話 0472 (61) 3819 (63) 7676

神學院設立의 氣運오름

中部地方会で
特別伝道集会開く

各教会間の連帯、連合事業盛ん

会伝道部（部長鄭永月）十日岡崎教会にお
ける道集会を開いた。五
十名の信徒が集まり、
師の「失われたものな
う題でなされた説教に
は、はじめ、中部地方会では各教会
間の連帯、連合事業が重視され、
盛んに行われている。今回も特
別伝道集会の前、婦女部の一

はじめ、中部地方では各教会間の連帯、連合事業が重視され、盛んに行われている。今回も特別伝道集会の前に、婦女部の一泊研修会がもたれ、講師に慶恵重牧師が招かれた。

午後六時から始まった伝道集会に中部地方の諸教会から約九十名の信徒が集まり、金桂晃牧師の「失われたものたち」という題でなされた説教に深い感銘をうけた。礼拝後、岡崎の厚いもてなしをうけ九時すき閉会した。

所長制やめ、総幹事制に
総幹事に裴重度氏任命

去る四月二七日、RAIKの第一二回理事会(李永欽理事長)が開催され、八三年度の活動報告、決算報告を承認するとともに、八四年度の活動方針案、予算案を審議した。決定事項は左記の通りである。

一、理事の任期更新について
中嶋正昭理事の更新を基本的に認めるが、多忙のため辞退されるときは、後任を日韓連帯特別委員会より推選してもらう。

一、欠員理事の推選について
現在、一名の理事が欠員となっているが、東京教会の朴貞子氏を理事として推選する。

又、朴米雄現理事の留学が予定されているが、実現した場合その後任として姜榮一牧師を推選する。

一、所長制度の廃止について
総会の任職員会の勧告に従い、KCCと同様に総幹事を実務責任者とする。総幹事には裏重度現主事を任命する。

一、規約改正について
理事の任期については、一年理事、二年理事を暫定的に設定し、理事会の成立を正常化する。

第七条(職員)の項)の所長制を廃し、総幹事制とする。ただし総幹事は理事とはならない。

一、活動方針

①同胞社会の実態研究と資料集の発行を行う

②同胞社会の地域運動の形成と発展に寄与する

③「民族差別と闘う連絡協議会」の運動の発展に寄与する

④同胞の諸問題に関する啓蒙活動を行う

一、予算案審議
総額、九八九万円(返済金一〇〇万を含む)余が承認された。

RAIK(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は、その名の通り在日の諸問題に関する資料の収集と研究を行っている。資料は、法的地位、社会保障、福祉、国籍法改正問題、教育、就労、行政差別として指紋押捺制度問題等にわたっている。それら資料は、大学の卒論資料、ゼミ資料として利用される他、各運動体も広く活用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総会会内の個教会でも大いに利用することをすすめる。在日に関するビデオを利用するのもよいであらう。

生花教室の韓国女性

東京、神奈川を中心に公館
教育院、在日同胞の諸団体の婦
人たちに生花を教える鄭月香女
史は、このたび横浜教会呂鳳基
執事を通して本国の難患者のた
めにと十万円を総会事務所を寄
附した。鄭女史は生花師範とし
ては居住する川崎はもろんの
こと東京、神奈川では広く知ら
れている方である。鄭女史はク
リスチャンではないが、生花を
習うクリスチャン婦人たちに通
じて教会の活動についてかなり
くわしい。鄭女史は、生花教室
から入る収入はすべて本国の社
会福祉事業、特に孤児院におく
られたそうである。毎年おくら
れる援助金は百万円をくだった
ことはないとのことである。今
後、総会の社会福祉事業にも積



黃義生牧師
無事に退院

担任手術の爲四月十六日名古屋〇〇病院に入院された名古屋教会黄養生牧師は、雖手術も無事終り約一ヶ月入院後、去る六月三日退院した。現在自宅療養中である黄養生牧師の爲に祈つていただきたい。

家庭教育

『共同体教育』

◆ 본 회 敎育局은 七月八일부터 十五日까지 基
 …… 督敎敎育週問으로 定하고 各敎會에 書信을 보낸
 ◆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各 敎會의 敎會學校生…
 …… 徒大會에 道을을 주기 위해 世界敎會協議會(W
 …… C C)에서 共同體敎育 Learning in Communi
 …… ty) 이라고 主題로 열린 회의에서 論議된 家庭
 ◆ 敎育 部分만을 실어 본다. < 편집 >

다.」(敎會의 特徵은 세계의 視野와 連結시킨다」라고. 한 편 充分한 커뮤니케이션을 爲해하는 言語, 限界, 信賴를 가진 人들을 어떻게 하는 文化的, 社會的, 經濟的 背景들의 차이와 충돌을 理解하고 分爭을 넘게하는 神學的인見解 차이들이야말로 敎育이라는 親交를 治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 家庭을 敎育해야 한지에 關心을 두기보다는 家族을 包括하는 「共同体」의 敎育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適切한 것이다.

個敎會에서의 基督教 敎育은 家庭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各世代들과 相異한 各世代들의 學習에 方向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敎育의 世

教会教育의核 心인家庭教育

世界教會를
向한 勸勉

一、敎會는 온 家族員이 嬰

할 수 있도록 案内해 주
쉬운 책자와 參考문헌들
開發해야 한다。

기독교의 要求를

야 한다. 이것은 카운셀러
교육의 기술을 포함하는
양한 牧會教育의 再定立을

三、敎會들은 各家庭들이 敎會와 世界的 共同體의 次 理解와 統合의인 視

間의 어린이와 家庭의 交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 (682) 1177 (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 話 052 (711) 4398

学院長 康 成 安
(関西聖書学院講師・武庫川教会執事)
尼崎市長洲中道1丁目66 TEL06(488)8887

代表 李 正 男
(北部教会 長老)

金鍾武牧師 委任式

西新井教会서 거행

五月二十日(日)午後四時、西新井教会(西新井)에서 金鍾武牧師의 委任式이 行해졌다. 金鍾武牧師의 委任式에 百餘名이 出席했다. 金鍾武牧師의 委任式에 百餘名이 出席했다. 金鍾武牧師의 委任式에 百餘名이 出席했다.



金鍾武 牧師 委任式 光景

名古屋教会起行式

初の多目的綜合ビル 教会と福祉施設兼る

名古屋教会は、六月十四日午前十一時、黄義生牧師の司式の下に、礼拝堂、保育園、特別養護老人ホーム建設の起行式をおこなった。起行式には中部地方会の各牧師、駐日名古屋総領館、愛知県民団、名古屋市民生局、福祉事務所、地域住民、名古屋教会信徒たちが多数が参加した。神の祝福のもとに、無事完成し、神のみさかえのあらわれんことを祈願した。黄牧師は、契機の中で一つの建物の中に教会と保育園と老人ホームが三つ同居することの意義を世の光、地の塩として神から与えられている教会の使命の観点から強調

を 確信하고 있다고 말하고 教友들은 物心兩面에서 牧師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順從하여 할 것이라고 축사를 하였다. 韓日教会交流会代表 佐野英二(牧師)가 日本教会를 대표하여 앞으로 聖교 發展을 위한 努力을 다할 것이라고 誓約했다. 金鍾武牧師와 함께 足立地域社会에서 그리스도의 福音宣敎와 人權問題를 함께 協力해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委任받은 金鍾武牧師는 答

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오 늘이 있는가를 自身도 잘모르겠다고 告白하고 다만 眞實하게 버려진 불행한 人들을 구하기 위하여 釘아가라고 使命을 맡긴 것으로 確信한다고 答復했다. 佐野 英二(牧師)는 韓日教会交流会 代表로 出席했다. 金鍾武牧師와 함께 足立地域社会에서 그리스도의 福音宣敎와 人權問題를 함께 協力해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委任받은 金鍾武牧師는 答

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오 늘이 있는가를 自身도 잘모르겠다고 告白하고 다만 眞實하게 버려진 불행한 人들을 구하기 위하여 釘아가라고 使命을 맡긴 것으로 確信한다고 答復했다. 佐野 英二(牧師)는 韓日教会交流会 代表로 出席했다. 金鍾武牧師와 함께 足立地域社会에서 그리스도의 福音宣敎와 人權問題를 함께 協力해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委任받은 金鍾武牧師는 答

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오 늘이 있는가를 自身도 잘모르겠다고 告白하고 다만 眞實하게 버려진 불행한 人들을 구하기 위하여 釘아가라고 使命을 맡긴 것으로 確信한다고 答復했다. 佐野 英二(牧師)는 韓日教会交流会 代表로 出席했다. 金鍾武牧師와 함께 足立地域社会에서 그리스도의 福音宣敎와 人權問題를 함께 協力해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委任받은 金鍾武牧師는 答

牧師委任式 宇部教会

本国서 李應周牧師 맞이함

第三十四回 定期西南地方會의 開會中에 大韓에 宣敎長老會 代表로 宣敎牧師로 到任한 李應周牧師의 宇部教会 委任式이 行해졌다. 西南地方會의 各 宣敎牧師는 李應周牧師를 歡迎하고 宇部教会의 牧師, 信徒들도 다

第三十四回 定期西南地方會의 開會中에 大韓에 宣敎長老會 代表로 宣敎牧師로 到任한 李應周牧師의 宇部教会 委任式이 行해졌다. 西南地方會의 各 宣敎牧師는 李應周牧師를 歡迎하고 宇部教会의 牧師, 信徒들도 다

第三十四回 定期西南地方會의 開會中에 大韓에 宣敎長老會 代表로 宣敎牧師로 到任한 李應周牧師의 宇部教会 委任式이 行해졌다. 西南地方會의 各 宣敎牧師는 李應周牧師를 歡迎하고 宇部教会의 牧師, 信徒들도 다

第三十四回 定期西南地方會의 開會中에 大韓에 宣敎長老會 代表로 宣敎牧師로 到任한 李應周牧師의 宇部教会 委任式이 行해졌다. 西南地方會의 各 宣敎牧師는 李應周牧師를 歡迎하고 宇部教会의 牧師, 信徒들도 다

西新井教会를 中心으로 한 教團教会와의 交流会活發

우리말로 聖餐式 가짐

本 總會에 소속한 西新井教会를 中心으로 日本基督教團 東・北地区의 教会로 된 西新井全体交流会가 五月二十七日(日)午後 西新井教会에서 行해졌다. 이 全体交流会는 四年前부터 매년 一回씩 西新井交流会에 參加를 促해왔으며, 어머니학교를 통해 具體的인 活動을 벌여 오고 있는 중이다. 이 날에는 兩教團의 宣敎 協約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合同聖餐式이 거행되었으며, 특히 兩教会의 協約에 關한 講演도 있었다. 全体交流会의 禮拝에서 金鍾武牧師는 「武器와 聖餐」이라는 題目으로 在日同胞의 日本社會에서의 位置를 밝히는 한편 宣敎의 重要性을 강조한 講義를 讀했다. 또한 現在 日本에서 일어

本 總會에 소속한 西新井教会를 中心으로 日本基督教團 東・北地区의 教会로 된 西新井全体交流会가 五月二十七日(日)午後 西新井教会에서 行해졌다. 이 全体交流会는 四年前부터 매년 一回씩 西新井交流会에 參加를 促해왔으며, 어머니학교를 통해 具體的인 活動을 벌여 오고 있는 중이다. 이 날에는 兩教團의 宣敎 協約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合同聖餐式이 거행되었으며, 특히 兩教会의 協約에 關한 講演도 있었다. 全体交流会의 禮拝에서 金鍾武牧師는 「武器와 聖餐」이라는 題目으로 在日同胞의 日本社會에서의 位置를 밝히는 한편 宣敎의 重要性을 강조한 講義를 讀했다. 또한 現在 日本에서 일어

本 總會에 소속한 西新井教会를 中心으로 日本基督教團 東・北地区의 教会로 된 西新井全体交流会가 五月二十七日(日)午後 西新井教会에서 行해졌다. 이 全体交流会는 四年前부터 매년 一回씩 西新井交流会에 參加를 促해왔으며, 어머니학교를 통해 具體的인 活動을 벌여 오고 있는 중이다. 이 날에는 兩教團의 宣敎 協約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合同聖餐式이 거행되었으며, 특히 兩教会의 協約에 關한 講演도 있었다. 全体交流会의 禮拝에서 金鍾武牧師는 「武器와 聖餐」이라는 題目으로 在日同胞의 日本社會에서의 位置를 밝히는 한편 宣敎의 重要性을 강조한 講義를 讀했다. 또한 現在 日本에서 일어



教團教会와 合同聖餐式을 하는 西新井教会



宇部教会서 열린 李應周牧師 委任式

わたしの歩んだ現代

飯沼一郎 市民運動を通して初めて見た、現代日本の全貌と抑圧の実態を鋭く抉る。●一五〇〇円

泉への招待

三浦綾子 神への信頼を語る愛と祈りの言葉。●二二〇〇円

東京・新宿・西早稲田 日本キリスト教出版局 ☎ 03-204-0422

愛三産業株式会社

済州カントリークラブ

代表取締役 白 昌 鎬 (東京教会 按手執事)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丁目 6番4号 ホワイトビル
電話 (03) 633-7477 (代表)

カナダ製高級毛皮輸入販売
ヨーロッパ製有名ブランドバック販売
ドイツ最高級羽毛フトン輸入販売

有限会社 ハーン・トレーディング・カンパニー

代表取締役 李 博 (横浜教会々員)

〒236 横浜市金沢区並木2丁目7-6-402
TEL (045) 785-5140

韓国への引越しは AKATSUKI

☎ (03) 501-1487
戸口から ↔ 戸口へ

創業15年

暁引越しセンター(株)

代表 金 慶 得 (東京第一教会 長老)

〒105 東京都港区西新橋1-20-15
第二はやまビル1・3階

本 社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26
〒816 電話 (092) 461-0055(代)

営業所 神戸市中央区国香通4-1-2新大国ビル702
〒651 電話 (078) 242-4018